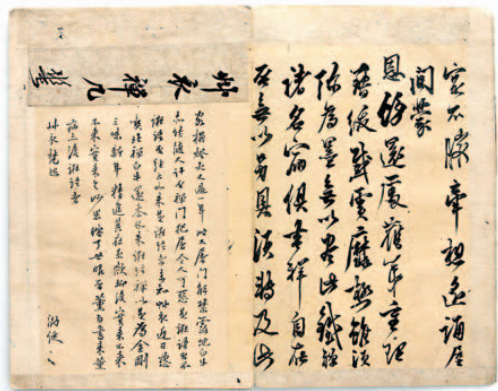


###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추사는 제주 시절 백파의 선리를 비판하고, 초의의 선리를 옹호하는 글을 남겼다. 다양한 불서를 참고했던 그가 의문에 봉착하면 자주 초의에게 문곤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의 편지에서 확인된다. 최근에 발굴된 <벽해타운첩>에는 초의의 선리 참구가 잘못되었음을 비판하는 내용이 소개되고자 한다. 이 편지는 <완당척독>에 이미 수록된 것이지만 <완당전집>(여초의)에는 누락되었던 자료이다. 특히 <벽해타운첩>을 장황(표주)하면서 <완당전집>(여초의)6신의 일부의 내용인 “寔不勝奢想遙誦 居士問蒙恩飾 還處舊第 重理簪 a 感(簪)雖須彌爲墨 無以盡此 鐵禪諸名宿 俱吉祥自在否 無以 具 須轉及此”이 합첩(合帖)되었기에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의 편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추사, 초의 선리탐구 모순 지적



추사의 친필 본인 <벽해타운첩>

### 백파 선리 비판, 초의 옹호하던 추사 초의는 어떤 견지처 드러냈을까

연 세인의 애꾸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훈스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병은 다시 회복되었는가요. 여래는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자란 말을 그대가 살펴보시길... 늘큰(客榻燈火 又過一年 時又屠門解禁 露地白牛亦作隨人 砲 禪門犯屠 令人可惡 是 語否 不 語否 經云如來是 語者 未知艸衣 近日恠喫 北禪白牛 還參如來 語 禪以是爲金剛三昧 新年精進 其在是歟 抑復實來不來 不來實來之妙 果 了世眼否 薰與書來 薰病亦復 語者艸衣梵照 師更)

이 편지는 추사가 <선요 제21단락>을 참고하여 초의의 선리 탐구의 모순을 지적한 것. 실제 이 편지가 어느 시기에 쓴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추사가 불교에 침잠되었던 시기가 제주 시절 이후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편지의 연대를 짐작할 뿐이다. 그가 언급한 노지백우(露地白牛)란 선어(禪語)는 「續傳燈錄」卷2에 “북선지현(北禪智賢) 선사는 설맞이를 할 경우에 노지백우를 삼고 온갖 진수성찬을 빠짐없이 차렸다”에서 인용한 것. 추사는 금강경에 “여래는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자”라고 말했다는 대목을 초의는 아직 모르면서 근래에는 “합부로 '북선의 지현선사가 노지백우를 삼아서 만든 진수성찬으로 대중을 맛보게 하였다는 일화'를 들먹이면서 이것에 빗대어서 도리어 '여래가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자이다'라고 한 것을 들어서 참고하고, 이것을 금강삼매라고 간주”하여 정초부터 정진한다니 여기에 올바른 도리가 있다고 여기는가”라고 질타한 것이다. 이어 추사는 “실래(實來)를 불래(不來)로 여기고, 불래를 실래의 묘로 여기”는 초의의 견해가 전도몽상(顛倒夢想)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추사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초의는 어떤 견지처를 드러냈을까. 후 추사의 지적을 옳다 여겨 자신의 통찰을 서리 받처럼 성성하게 세웠던 것은 아닐까. 초의의 입처(立處)가 궁금하다. 한편 추사는 자신에게 차를 보내 주었던 훈 스님의 안부를 물었는데, 훈 스님은 초의의 제자인 향훈이다. 차를 잘 만들었던 그는 제주로 차를 보내 추사를 위로했던 인물이다. 그가 병중에 있음을 알렸던 지, 추사는 이 편지에서 향훈의 병환을 물었으니 향훈에게 보낸 그의 살가운 정이 훈훈하게 느껴진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 폐품 팔아 보시행... 30년 이웃도운 '보살'

## 황화의 보살 (서울시 복지대상 수상)

**빈 병 주우며 시작한 봉사**  
“아휴 뭐하러 여기까지 와. 애기고 뭐고 더 할 게 없는데...”  
지난 9월 9일 '서울시 복지상' 대상을 받은 황화의 보살(78)은 처음엔 인터뷰를 만류했다. 그는 30년을 넘게 남을 도우며 살았다. 그런 그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더욱 듣고 싶어졌다. 끈질긴 구애(?) 끝에 어렵게 시간을 받아내 지난 10월 3일 그를 만났다.  
“저는 종로구 이화동 새마을 부녀회원 황화익입니다.”  
폐품 수집 하며 이웃을 도운 공로로 1985년 새마을 알뜰주부 사례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할머니가 신문에 직접 쓴 수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부녀회원으로서 할 수 있는 새마을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 끝에 폐품수집이 제격이라는 생각을 하고 월례회의 때 의견을 했지요. 회원들의 이야기는 찬반 양론으로 갈렸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란 속담과 제가 살아온 과거 경험담으로 설득해 회원 각자 폐품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인 만큼 썩스런 점도 없지 않았지요. 그러나 한번 마음먹은 일이니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이 빈 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부터 꾸준한 보살행을 펼쳐온 그는 이제 ‘폐품 할머니’로 불린다. 황 보살은 지금도 계속 폐품 수집중이다.  
동승동 황 보살집 대문 옆 간이 창고에는 강통, 폐지, 빈 병이 수북이 담긴 포대자루들이 보였다. 할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동승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모은 폐품들이다. 1주일정도 모으면 재활용 업체에 갖다 줄 만큼 된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웃주민들을 도왔다. 기껏해야 하루 하나당 3천원 정도 받지만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힘든 이웃에 양말도 챙겨주고 쌀, 연탄, 병원비도 보냈다.  
새마을부녀회는 70년 대 농촌에서 ‘잘 살아보세’로 시작한 새마을 운동이 도시로 확대되면서 만들어졌다. 아무 생각없이 가입한 부녀회였지만 이후 봉사는 할머니의 ‘삶’이 되었다. 먹고 살기 바빴던 평범한 주부의 눈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보였다. 그때부터 폐지만 모으다하면 팔아서 주민들에게 밥 해 먹고 필요한 데 쓰라며 돈도 쥐어줬다. 충남 계룡산에 갔을 때는 버려진 강통 60개를 주워오기도 했다. 8kg 들이 쓸 한 말미 5600원이던 시절, 몸 아픈 어르신이 부실한 정부미로 죽 끓여 먹는 것이 안쓰러워 햅쌀 한 말도 사드렸다.  
“아파서 다 돌아가시게 생겼었지. 교회서 할머니한테 2만원을 줬는데 그 돈으로 병원에 갈까 쌀 살까 고민하고 있더라구. 그래서 내가 그랬지. 쌀은 내가 줄 테니까 그 돈으로 병원 가보라구. 그 후 그 할머니가 나를 볼 때마다 그러더라구. 애기엄마가 준 쌀로 죽 끓여 먹고 살아났다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해지더라구. 큰 보람을 느꼈어.”  
지금까지 도움준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 황 보살이 답했다.  
황 보살은 어르신이 나중에 중풍 걸려서 꼼짝 못할 때는 머리도 깎아주고 말벗도 돼 드렸다. 임종했을 때는 폐품 팔 돈으로 낙낙히 조의금도 전했다.  
자식없는 독거 노인들, 아픈 어르신들이 항상 황 보살 도움의 손길 1순위였다. 하루에 모은 빈 병은 돈으로 따져봐야 고기사 잡수시라고 김제학 할아버지 할머니는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했다. ‘폐품통장’이라 불린 통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13개나 쌓였다. 그간 도움준 이웃들을 생각하며 차곡차곡 써내려간 후원일지도 지난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듯 누렇게 색이 바랬다.  
“1985년 신정에 김진영 할아버지 쌀 한말, 자식 없는 노인이라 고기사 잡수시라고 김제학 할아버지 5000원, 1985년 추석에 이아지 할머니 1만원짜리 옷 한 벌씩, 경주차 아들 불구자 라면 1상자 4400원 등

등” 노트에 빼곡히 적혀진 후원일지 내용이다.  
“남들은 명절이라고 선물 들고 왔다 갔다 하잖우. 그런데 동네 노인네들이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 왔다 갔다하는 것만 마냥 쳐다보고 있더라구. 그래서 고기 한 근이랑 쌀 한말이랑 사드리면서 명절 잘 보내라고 했지요.”  
이제껏 써온 후원일지를 넘기며 할머니가 말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한참 짚어 내려가다 잠시 멈춘다. 그리고는 이제 생각나는 듯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 이젠 청소부아저씨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양말도 챙겨주고 저녁식사로 대접한 거야. 떡국 끓여냈더니 아주 맛있게 잡수시더라구. 그리고 이젠 어버이날에 어르신들한테 스웨터 사드린 거고. 옛날에는 먹을 것도 귀했지만 옷도 마찬가지로였거든. 요새야 쌀 웃이 많지만.”  
스웨터 입은 어른들이 함박 웃음 짓는 모습만 봐도 황 보살은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환희심을 드러냈다.

**남한테 주는 게 보람있어**  
폐품 팔아서 10월, 20월 모은 돈으로 황 보살이 도움 준 사람은 1년에 열 명 남짓한 작은 숫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봉사한지 30년이나 지금까지 족히 300명이 넘는다.  
돈만 모으었다하면 주변 독거노인들이나 병원에 입원 중인 이웃들을 찾아 위로금을 전달한다. 아픈 사람은 무조건 3만원. 황 보살만의 료이다.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돈이지만 재력가의 기부금 3천 만원에 견줘도 손색없을 만큼 마음이나 정성은 결코 뒤

**하루 벌어도 고작 몇 백원**  
**그동안 모은 '폐품통장' 13개**  
**한 푼씩 모아 쌀, 연탄 등 보시**  
**봉사활동 시간만 2400시간**  
**총 기부 금액 1000만원에 달해**  
**아픈 사람 있으면 무조건 도와줘**

지지 않는다. 전철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우리들로서는 한뼘쯤 굽힐 수 있는 숫자다.  
손가락은 베이고 굵은 허리는 퍼질 새 없지만 황 보살은 지금도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다. 무릎관절 수술은 물론 허리디스크, 눈, 치아 임플란트 등 병을 달고 사는 온 몸이 종합병원이지만 봉사정신 만큼은 투철하다.  
이런 황 보살의 열정에 가족들두 두 손 두발 다 들었다. 강통들을 마당으로 주워나르자 “구차스럽게 그런 일을 왜 하느냐”던 남편도 점차 황 보살 뜻에 동조해 무거운 것을 함께 들어다 주기 시작했다. 55년 전 남편의 연애편지를 아직도 간직하는 황 보살 옆엔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더 이상 없지만, 묵묵히 옆에서 도와주던 따스한 기억만은 아직도 새롭다. 간혹 가다 했던 타박은 황 보살이 다칠까 염려한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는 그도 안다.  
“모든 잔소리들이 다 나를 위해서였다는 걸 깨달으니 먼저 세상 떠난 남편에게 그렇게 미안하고 고마울 수가 없어. 함께 폐품 모으러 다닐 때가 가장 행복했지.”  
시원찮은 몸을 이끌고 이렇게 폐지수거에 나서서 이유가 궁금했다. 황 보살은 “폐품 팔아서 모은 돈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는 게 보람있어서”라고 답했다. 그게 다다. 푼돈 모으면서 30년 지속해온 이유치고는



1984년 7월 16일, '폐품통장'의 첫 개설일이다. 폐품을 팔 돈은 무조건 통장에 넣었다. 그 후로 통장은 13개나 쌓였다.



서울시 복지대상 상패에는 “이웃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한” 황화의님께 “천만 시민의 감사”를 전한다고 새겨져 있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 입 증 안 내 ◆**
- 1) 입증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6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해외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중정예경실 055)364-4747
  - 2) 입증 후 발급증서**
    -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 종 정 청봉 석정산 (중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중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b>원로회</b>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공 석만월	<b>승정원</b> 승정원장 석원정	<b>중앙총회</b> 총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b>호법원</b> 호법원장 석원명	<b>감찰원</b> 감찰원장 석만오	<b>사정원</b> 사정원장 석범경
<b>총무원</b>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운오 재무부장 석범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초오	<b>부 원 장</b> 석운암 <b>교무부장</b> 석성오 <b>사회부장</b> 석혜주 <b>동원부장</b> 석범원 <b>의전부장</b> 석근홍	<b>호계원</b> 호계원장 석지원	<b>문화원</b> 문화원장 석설산	<b>감사원</b>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범호	<b>포교원</b> 포교원장 석해광 <b>기획원</b>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범승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http://www.dwbk.net)

### “제 14기 영남(통도소리)범음범배 교육생모집”

범음(호소리, 질소리) 범배(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_ 도량성, 조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_ 중노릇하는법, 상주권공, 구명시식등, 천도제,  
 • 전문 2년 \_ 시왕각배, 예수제, 영산제, 수록제,  
 (기초의식부터~ 전통전문분야등 범배의 모든 것)  
 개강일 2014년 양력 1월 6일 (매주 월요일)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화하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황희익 보살은**... 1982년에 새마을 부녀회에 가입,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폐품 수집을 하기 시작했다. 이 공로로 1985년 새마을 알뜰주부 사례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꾸준히 빈 캔을 모아 독거노인, 아픈 어르신들을 30년 넘게 도와왔다. 지난 9월 9일에는 서울서북지상 대상을 수상했다.

약간 싱거울 정도로 간단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힘들게 뭐 있냐”고 오히려 반문한다. “그냥 좋아서 즐거워서 힘든 줄 모르고 시작한 게 벌써 30년이 됐지. 그냥 묵묵히 한 거지 뭐. 하지만 몇 번의 고비도 있었어 남편이 장사하다가 동네 사람에게 속아 쫓딱 망했거든. 그때는 정말 살기도 막막했었지. 그래도 봉사는 계속 했어. 그냥 했어. 내가 하던 거니까.” 어스름한 새벽녘, 차가운 공기 마시며 빈 캔을 주웠다. 날카로운 유리조각에 손을 뺄 때면 사는 게 이렇게 생체기 나는 거지 싶었다. 깊게 베인 상처도 스치듯 굵힌 상처도 때 되면 아물듯, 사람들을 쟁겨주며 할머니도 치우되어갔다.

정작하게 몸을 움직여 이웃들을 도와주고, 고마워하는 그들 눈빛에 개운해져갔다. 자기 위로에 갇히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타인의 웃음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던 시간이었다.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할머니의 삶도 어느덧 연봉향 연꽃을 닮아갔다.

**좋은 일 하니 좋은 일 따라와**  
“혼자는 못하지.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 사실 봉사는 황 보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빈 캔을 함께 주으러 다니는 친구 할머니도 있고 포대자루가 차면 리어카에 실어 날라주는 이웃집 할아버지도 있다.

좋은 일 한다고 동네 가게에서는 박스가 모였다 하면 황 보살에게 건네준다. 길가에 떨어진 빈 병을 그냥 못 지나치고 황 보살에게 가져다주는 사람도 많다. “그렇게 모이면 얼마나 많은데”라며 그가 웃음 짓는다.

황 보살의 자녀는 1남 3녀. 그 중 아들은 그의 자랑이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대학을 수석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명문대에 입학한 손자 칭찬에도 입이 마를 새가 없다. “주변에서들 그래. 황 보살이

이렇게 좋은 일 하니까 좋은 일이 또 돌아오는 거라고 하하”

황 보살의 말끝에 붙은 웃음에 행복이 묻어났다. 인과율이나 공덕이란 단어를 모르지만 황 보살은 최소한 선업을 쌓으면 자신에게 복으로 되돌아온다고 믿었다. 초파일 되면 절에 가서 절하고 연등 켜는 여느 평범한 불자와 다를 바 없었지만, 때로는 단순함 속에 깃들여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이 주는 울림이 더 크다.

새벽이면 폐지 줍고 아침 되면 근처 대학로 마로니에 경로당서 짬뽕이 급식봉사를 돕는다. 점심때가 되면 종로복지관에 가서 포크맨스를 주고 장구도 치면서 합창도 한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황 보살이 알고 보니 노래자랑 1등 출신이다.

애창곡이 송미나의 ‘웃고살자’라는데 “뭘 해도 다 재미있다”는 황 보살과 딱 어울린다 싶다. “봉사도 재미로 알고 하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황 보살한테는 더 이상 질문이 필요없다. 남 쟁겨주는 게 좋고 그 성의가 전달됐을 때 받는 따뜻한 정에 30년 세월이 흘렀다.

건강하다는 것과 병을 주울 수 있다는 것. 황 보살의 행복 요건은 단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래서 예전도, 지금도 늘 행복하다. 황 보살은 앞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폐품을 모으고 싶다며 말을 끝맺는다. 황 보살은 빈 포대를 폐품으로 채우듯 마음 속에 이웃을 담았고, 채워진 포대를 비워내듯 자신을 비우며 지난 세월을 살아왔다.

누군가가 버린 폐품은 또 다른 누군가가 두고두고 간직할 선물이 되어 돌아왔다. 황 보살이 만든 것들이다. 시간을 재로삼아 인연의 실을 짓는 황 보살의 마음은 이타행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간단하고 쉬운 진리 속에서 황 보살의 행복은 현재진행형이다.

글=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한복이 잘 어울리는 어르신 선발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첫째줄 왼쪽 두번째가 황보살.

**전법일기**

**불자 어린이의 고민**

병주의 엄마, 아빠는 모두 직장을 다니신다. 그래서 어느덧 1학년이 된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스스로 숙제도 하고 학원도 알아서 가야한다. 다른 또래 아이들 보다 덩치가 크고 의젓해서 누가 보든 들판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아이이다.

어느 날 좋아하는 태권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원차에서 운전기사 아저씨가 문득 말을 건넨다.

“병주야! 너 교회 다니니?”

“아니요.”

“그래? 그럼, 우리 교회 다녀라. 너처럼 잘생기고 똑똑한 아이는 교회를 다녀야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 오면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재미있는 게임도 많이 할 수 있어. 내가 교회 집사거든. 그러니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교회에 와. 내가 잘해 줄게.”

기사 아저씨의 교회를 다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아이는 차에서 내릴 때까지 듣고 있어야만 했다. 특히, 좋아하는 영화를 보여준다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한 뒤 묻는다.

“음...그런데, 아저씨,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 먹고 싶어서, 제가 목은 교회에 갈 수 있는데요. 마음은 벌써 불교에 등록 되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요?” 아이는 순진한 눈망을 굴리며 말뚱말뚱 쳐다 본다.

순간, 당황한 집사기사님. “글쎄...”

저녁이 되어 직장에서 돌아오신 엄마에게 아이는 있었던 일을 이야기 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엄마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마음이 불교에 등록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한번의 수계식이 아이를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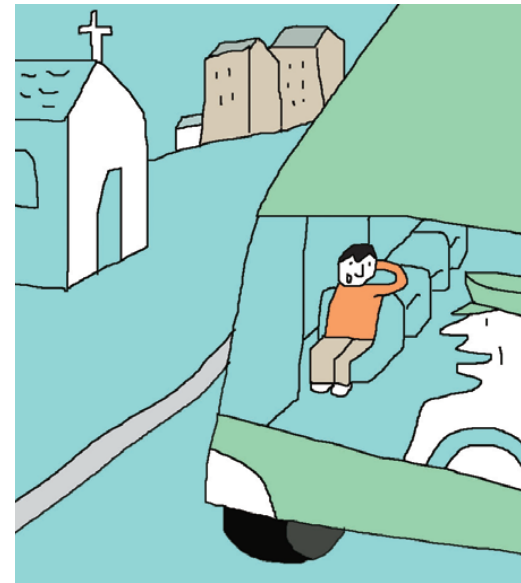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그런데 병주야! 마음이 어떻게 불교에 등록되는 거지?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의 질문에 나무라기라도 하듯 “엄마, 이번 여름 캠프에서 ‘증’ 받았잖아요. 그거 등록증 아니에요?”

그제서야 그 ‘증’이라는 것이 영어담마캠프에서 받은 수계증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패자를 불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수계식이 얼마나 커다란 의미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신심이 있는 병주에게 다시 시련이 찾아왔다. 옆집 형의 초대였다. 옆집에는 우연찮게도 목사님 가족이 산다. 병주는 9살인 목사님 아들에게 형이라 부르며 재미있게 잘 지낸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병주네 우체통으로 초대장을 보냈다.

“병주야! 이번주 일요일에 우리교회에서 축제를 해, 재미있는 만화영화도 보여주고 맛있는 떡볶이랑 먹을 것도 많아. 나는 병주가 꼭 오면 좋겠다. 형아가” 엄마와 함께 우체통에서 편지를 발견해 읽은 병주는 다시 큰 고민에 빠졌다.

“엄마, 어떻게 할까요? 옆집 형아가 초대하는데... 만화영화도 보여준다는데...” 아이가 망설이는 것이 역력했다. 순간 ‘이번에는 병주가 넘어가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글쎄, 잘 생각해 봐. 너에게 온 초대장이니 네가 결정해야지.”

‘아이, 어찌지? 만화영화 보여준다는데 한번만 갈까?’ 하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청소를 하고 있는 엄마에게 달려와 “엄마, 편지 좀 주세요.” “왜?” “형아에게 편지 쓰게요.” 한다. 아이는 한참을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형아, 나를 축제에 초대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형아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불교에 다니는 사람이라서 가기가 어려워. 형 안녕.” 아이와 엄마는 고민 끝에 그 편지를 옆집 대문에 붙여 놓았다.

아이를 세상에 벌여지는 일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어려서 경험한 것들은 우리에게 친숙함을 주고, 그 친숙함은 상식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나는 오늘도 또 다른 병주를 만들기 위해 꼬마대장이 된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 대승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원효와 법장의 소(小)를 비교·분석하며 일심(一心)과 진여·생멸 이문(二門)의 참뜻을 논리정연하고 상세하게 해설!

치밀한 구성, 정확하고 간결한 문체, 독창적인 사상체제로 증관, 유식, 여래장 등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회통하며 대승(大乘)의 대의(大義)를 논하는 대승불교 최고의 논서 『대승기신론』

**大乘起信論 講解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지음

416면  
값 22,000원

**한자경 韓慈卿**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학위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원효철학 전공)를 받았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철학으로 박사학위(유식불교 전공)를 받았다.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인르와 초월철학』, 『자아의 탐색』, 『자아의 연구』, 『유식무경』, 『동서양의 인간이해』, 『일심의 철학』, 『불교철학의 전개』, 『인르철학의 초매』, 『불교의 유아론』, 『21자(字)의 여정』, 『명상의 철학적 기초』, 『한국의 철학의 맥』, 『예절 정신철학의 이해』, 『불교철학과 현대문명의 만남』 등이 있다.

대주혜해 대珠慧海 선사 지음  
한대원開大元 선사 강설

**大珠禪師語錄  
대주선사어록 강설(상·하)**

(상권)  
돈오인도요목론 頓悟入道要目論  
520면 32,000원

(하권)  
제방문인참론 諸方問入參論  
280면 18,000원

한국불교의 근간!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돈오선(頓悟禪)의 정맥(正脈) 우리 시대 최고 선승 중 한 명인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

간화선의 가치를 내걸고 있는 한국불교! 그 뿌리는 돈오(頓悟)에 있고, 돈오는 『대주선사어록』에서 출발한다.

8월 이전에 판매된 29권의 『대주선사어록 강설(上·下)』을 새책으로 교환해드립니다. 불광출판사 (02-402-3200)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gwang.co.kr @bulgwang\_c u.facebook.com/bulgwang